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국제부  
발 신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106개 단체)  
(담당: 참여연대 전은경 02-723-0808, pspdint@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23. 02. 01. (총 13 쪽)

## 보도자료

###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봄의 혁명,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시·장소: 2.1(수) 오전 11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옥수동)

1.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약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106개 단체)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을 맞아 오늘(2/1) 오전 11시, 미얀마 무관부 앞에서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민주주의를 위해 지난 2년간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시민들을 추모하고, 여전히 목숨을 걸고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전했습니다.
2.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1월 30일까지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만 최소 2,901명에 달합니다. 그동안 17,525명이 체포되었고, 이 가운데 13,719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을 비롯한 145개 한국시민사회단체와 시민 200명은 무차별적인 폭격과 방화, 체포와 구금 등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미얀마의 비극 뒤에 한국기업이 있다고 강조하고, 지난 2년간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연대해 온 한국 시민사회의 중단 없는 연대와 지지를 다시 한번 결의했습니다.

#### ■ 개요

- 제목 :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2월 1일(수) 오전 11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 ([서울시 성동구 한림말3길 23-2](#))

- 주최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 프로그램
  - 사회\_ 상현(미얀마지지시민모임 집행위원)
  -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희생된 미얀마 시민들을 위한 추모
  - 발언1\_ 안나이툰(NUG한국대표부 특사)
  - 발언2\_ 강인남(해외주민운동연대 대표)
  - 발언3\_ 웨노웨 흐닌 쏘(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 리더)
  - 발언4\_ 전은경(참여연대 활동가)
  - 발언5\_ 윤지현(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_ 박정순(실천승가회), 케티뚜엥 아웅(군부독재타도위원회)

-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국문)
- ▣ 붙임자료2. 기자회견문(영문)
- ▣ 붙임자료3. 기자회견문(미얀마어)
- ▣ 붙임자료4. 발언문

## “봄의 혁명,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 시민불복종운동과 국제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

2021년 2월 1일, 민 아웅 흘라잉과 미얀마 군부는 장갑차를 이끌고 미얀마 의사당을 점거했다. 이날 이후 미얀마 민중의 악몽이 시작됐다. 미얀마 국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쫓겨났고, 아웅산 수치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투옥됐다. 민중들의 삶은 파괴되었고, 이견은 묵살되거나 짓밟혔다. 미얀마 민중은 포기하지 않고 행동을 개시했다. 병원과 철도, 항만, 학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시민불복종운동과 파업에 나섰고, 봉제공장의 수많은 노동자들도 공장 문을 닫고 도심으로 나섰다.

군부는 폭력 진압과 학살로 대응했다. 노동자들에게 해고 협박을 가하고,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총칼을 들이밀고 체포했다. 2023년 1월 30일 기준 최소 17,525명이 체포되었고, 약 3천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5만 채의 민가가 불에 탔으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부의 공격을 피해 난민이 되어야 했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월 24일에도 카렌주의 마을들이 군부 공격에 파괴되었고, 5천여 명의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언론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이제는 시민들의 출국마저 원천 봉쇄하고 있다. 미얀마 민중들은 민 아웅 흘라잉을 비롯한 군부 세력이 민주주의에 대한 ‘반란 세력’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기업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와 협력 중단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에너지와 합쳐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었다. 이 중 상당액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통해 거둔 수익이다. 더구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연말 하루 3,800만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미얀마 A-1 해상광구에 위치한 슈웨 가스전 3단계 개발사업 조사도 실시했다. 미얀마 군부에 이익이 되더라도 미얀마에서 이윤을 계속 확보하겠다는 포스코와 같은 기업은 미얀마 민중의 민주주의와 삶을 파괴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기업 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미얀마를 비롯해 곳곳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인권 및 환경침해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ESG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고 있다. 심지어 ‘지속가능성대회’ 수상기업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겠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권과 환경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소관위원회에서 멈춰 있으며,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미얀마의 비극 뒤에 한국 기업이 있고, 이는 우리가 미얀마에 연대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악조건 속에서도 미얀마 민중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고, 국제사회 역시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열망과 불복종운동에 대한 연대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2년동안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끊임없이 후원하고 연대해온 한국 시민사회 역시 중단 없는 연대와 지지를 결의한다. 오늘날 미얀마 민중이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군부와 자본의 독재,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모든 시민들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민불복종을 멈추지 않는 미얀마 민중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계속 함께 할 것이다.

아편따바 미얀마!

## 2023년 2월 1일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및 39개 한국시민사회단체, 개인 200명

**(145개 시민사회단체)**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가)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성북시민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 의사회, 고양YMCA, 공익법센터 어필,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광주청년유니온, 국가폭력에 저항하는아시아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국제청년센터, 군인권센터,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민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녹색당,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뉴욕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더불어한길,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명상의집자애, 미래당,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발전대안파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오픈넷, 사단법인청년김대중 창립준비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교회를 준비하는 만두파티, 서울녹색당, 서울시사회복지사업회 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성남 YMCA, 성미산학교,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서어 SHARE, 세계시민선언, 세첸코리아,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양YMCA, 양산YMCA, 에큐메니안,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우리만화연대, 울산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B,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교조경기지부 고양중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지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5.19 구속부상자회, 전북교육마당, 전북불교네트워크, 전주YMCA, 정의당 국제연대당원모임,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진보3.0,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창작21작가회, 천주교 안동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 위한 YMCA 만민회, 푸른공동체살터, 프란치스칸재속회 정평창보위원회, 프로그래시브 코리아(progressive korea),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해외주민운동연대, 현대자동차 불자회, 형명재단, 홀리스행동, 흥사단), (사)제주다크투어, 5·18기념재단, 개성 문화원,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경북북부이주노동센터, 공적인사적모임, 광주민족미술인협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난민인권센터,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를 위한 광주연대, 미얀마 투데이, 미얀마군부독재타도위원회, 미얀마민주화를위한기독교행동, 방구석 개발협력,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아카이브평화기억, 안동지역 미얀마관심이모임, 예술행동 한뼘,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광주모임,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학교

용봉편집위원회, 주한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지금여기교회, 창작21작가회,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한국예와-한국에 있는 미얀마 정부 네트워크, 한빛교회, GMSR-Korea 글로벌 미얀마 혁명 연대

**(200명 개인)** 가니스 옥타비아나, 강기철, 강다영, 강성래, 강성원, 강슬기, 강승우, 강연배, 강준용, 고순희, 고태은, 구본빈, 권미정, 길벗, 김강희, 김기남, 김나혜, 김동원, 김민석, 김민아, 김보화, 김수영, 김시원, 김예지, 김용현, 김용훈, 김은지, 김정현, 김지영, 김지혜, 김태훈, 김현택, 김현수, 김형국, 김혜민, 김홍규, 김희옥, 나디, 나무, 나울, 나윤경, 노소은, 도금재, 도로테, 레아, 류다솔, 류민희, 류순권, 류인근, 명구, 명숙, 문보현, 문예린, 문창길, 물념념이, 뭉치, 민경자, 민서연, 바다빛, 박명남, 박미경, 박미숙, 박민수, 박성호, 박영훈, 박정순, 박준수, 박준영, 박혜민, 박효진, 배민정, 배성민, 배예주, 배용한, 변주현, 보키, 사랑해, 서애란, 서옥림, 서유진, 서창식, 성보란, 성상민, 소리, 손동신, 솔, 솔솔, 솔잎, 송유림, 수산나, 신세현, 신정현, 신혜정, 안나, 안민영, 양미연, 양정문, 엄소희, 연웅, 오규상, 오로라, 오의석, 오지연, 옥세영, 우성구, 우승훈, 원일, 유미란, 유보미, 윤신원, 윤용숙, 윤은성, 은석, 응웬 땡 텡, 이기만, 이동민, 이상현, 이선미, 이소뭉, 이슬기, 이승연, 이승한, 이은아, 이은정, 이은지, 이재각, 이종란, 이지원, 이철승, 이충열, 이충희, 이현석, 이형호, 이해정, 이호, 이호영, 이환태, 임용석, 임호연, 장병기, 재임, 전경민, 전교탁, 전상규, 전은경, 전정환, 전지윤, 정동민, 정수근, 정시영, 정은희, 정이채, 정재원, 정하연, 정혜원, 제인, 조귀제, 조규석, 조석옥, 조소민, 조연정, 조용석, 조은혜, 조지혜, 조현철, 조형우, 조환기, 지영화, 지혜복, 차근식, 차미크르, 초원사진관, 최경훈, 최윤희, 최은영, 최종덕, 최효자, 캡틴 최성호, 킨메이타, 탄잔린, 파도, 파람, 하현수, 한기영, 한재광, 한재량, 한채민, 함바, 허깨비, 허승규, 혜수, 흥세미, 흥숙, 흥연정, 흥지연, 흥희자, 희음, jess, Rizqan Kariema Mustafa, sorigirl

■ 붙임자료2. 기자회견문(영문)

**“Spring Revolution, We Stand in Solidarity with Myanmar People”  
Two years of Myanmar's military coup and massacre,  
Civil disobedience movement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will not stop.**

On February 1, 2021, Min Aung Hlaing and Myanmar's military took over Myanmar's house of parliament with armored vehicles. After that day, the nightmare of the Myanmar people began. The lawmakers who were democratically elected by the people of Myanmar, kicked out and Aung San Suu Kyi and other government officials were imprisoned. People's lives were destroyed, and dissent was ignored or trampled.

The people of Myanmar did not give up and began to act. Public sector workers, including hospitals, railways, ports, and schools, went on civil disobedience movements and strikes, while numerous workers at sewing factories also closed their factories and went out into the city center.

The military responded with violent suppression and mass slaughter. Workers were threatened with dismissal, and they mercilessly pointed guns at people who staged the demonstration and arrested them. As of January 30, 2023, at least 17,525 people were arrested and about 3,000 were killed. 50,000 houses were burned, and more than two million people became refugees fleeing from military attacks. Just a week ago, on January 24, villages in the Karen state were destroyed by military attacks, forcing more than 5,000 residents to leave their hometowns. The junta has blocked the media and is now blocking people from leaving the country. Myanmar's people voice out that the military forces, including Min Aung Hlaing, are nothing but "rebellious forces" against democracy.

Are we free from responsibility in these tragic situations? Korean corporation POSCO International still has not stopped cooperating with Myanmar's military. Last year, POSCO International, combined with POSCO Energy, earned an operating profit of 1 trillion won (about 800 million USD). A significant portion of this was from the Shwe Gas Field project in Myanmar. Moreover, POSCO International conducted a third phase of the Shwe Gas Field development project at the end of last year, located in Myanmar's A-1 offshore mine, which can produce 38 million cubic feet of natural gas a day. POSCO, which continues to benefit Myanmar's military to secure profits in Myanmar, deserves criticism for destroying democracy and the lives of people of Myanmar.

South Korea does not have a proper legal system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corporate activities. POSCO has received the highest grade in ESG indicators despite its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is promoting that it is the frontrunner of 'just transition' for it being the winner of Korea Readers' Choice Awards at Korean Sustainability Conference. An amendment bill to the Foreign Resource Development Act, which strengthens social responsibility for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in the process of promoting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has be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 bill has been stuck by the competent committee. Furthermore, even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s opposing the bill, stating that such an amendment will be burdensome to corporate activities. Korean corporations are backing the tragedy of Myanmar and this is one of the significant reasons for our solidarity with Myanmar

Despite arduous conditions, people of Myanmar's resistance continu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s its solidarity with people of Myanmar's desire for democracy and the civil disobedience movement. Korean civil society, which has been constantly standing in solidarity with and supporting Myanmar's democracy for the past two years, once again resolves its unceasing solidarity and support. Today, restoring democracy in Myanmar is inextricably linked with restoring everyone's peaceful and democratic daily lives including those who fight against the military junta, dictatorship of capital and climate crisis. As long as there are Myanmar people who do not stop civil disobedience, we will continue to stand in solidarity. We will not stop. Ah-ddin-tava Myanmar!

February 1st 2023

**Korean Civil Society in Support of Democracy in Myanmar(Coalition of 106 organizations)  
and 39 organizations, 200 Citizens**

**(145 Organizations)** Korean Civil Society in Support of Democracy in Myanmar(Coalition of 106 organizations) , JEJU DARK TOURS, The May 18 Foundation, Kaesong Center, The bereaved family of Jeong Soon-gyu of Kyungdong Construction, GYEONGBUK BUKBU MIGRANT LABOR CENTER, Gongsamo, National Artists Association Gwangju Branch,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climate performer, NANCEN Refugee Rights Center, Green Party Korea, Solidarity for Another World, Gwangju Alliance Against Opposing the Military Regime and with Supporting Democratization in Myanmar (Myanmar Gwangju Alliance), Myanmar Today, Junta Denouncing Committee(Korea), Korea Christian Solidarity for Democracy in Myanmar, bangguseok.dc, AD KFEM, March to Socialism, March to Socialism, sungkonghoe university human rights committee, Memory and Peacebuilding Archive, Solidarity for Myanmar Democracy Movement in Andong City, South Korea, activists Hanppyeom, Gwangju Citizens' Meeting Wishing Peace in Ukraine,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Alliance for migrant workers' equal rights, 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ongbong Editorial Board, Myanmar Worker Welfare Center, The Church of Now & Here, Creative 21 Writers Association, Archdiocese of Gwangju justice and peace committee, Socialist Students Alliance, HANGUKYWA- Burmese Information Network in Korea, Hanbit church, GMSR-Korea Global Myanmar Spring Revolution, Amnesty International Korea

**(200 Citizens)** Ganie Oktaviana, Kang Ki Cheol, Da Young KANG, Kang Seongrae, Kang seong won , Kang Seulgi, Seungwoo Kang, Kang Yeon Bae, Kang jun yong, Ko Soon Hee, Ko Taeun, Gu, Bon Bin , Kwon Mi-Jung, Gilbert, KANGHEE KIM, Kinam Kim, Potato, Kim Dong Won, KIM MIN SEOK, Minah Kim, Kim bo hwa, KIM Suyoung, Kim Siwon, Yeji Kim, KIM YongHyeon, kim yong-hoon, Eunji kim, KIM, JEONG-HYEON, Jiyoung Kim, Jihye, Kimtaehun, Yisan, Su Kim, Watchman , KIM HYEMIN, Kim Honggyu, Hiiock Kim, Nadi, youngtree, Naui, Na YoonKyung, Soeun Noh, dokumejea, Dorothy, Lea, Dasol Lyu, Liu, Minnie, NATURE, Ryu Inguen, Meongoo, Myoung Sook, BOHYUN MOON, Yerin moon, moon, changgil , waterdrinker, Minueong Kim Han, Minkyeeoung ja, Min seo yeon, seagreen, Myung Nam Park, mikyung, Park, Park Minsoo, Park Sungho, Younghoon park, Jeongsoon, park jun sou, Junyoung Park, PARK HYEMIN, Hyojin Park, Bae Min Jeong, BAE SEONG-MIN, Bae Yeju, Bae, Yonghan, byeon ju hyeon, Poki, s4ranghae, Suh Ae Ran, Rimdoro, SEOYUJIN, SEO CHANG-SIK, Sung boran, SUNG Sangmin, kate, SonDongShiin, Sol, Sol, Solip, SONG YOURIM, Susanna, Shin se hyeon, Shin Jeong Hyeon, Shin Hyejung, Anna, An minyoung, Yang Miryeun, Yang Jungmoon, Sohee Eom, yeonyun, Kuesang Oh, AURORA, Euseok Oh, Oh Ji Yeon, Seyoung Ok , Woo, Seunghoon Woo, wonill, Yoo Miran, Bomi Yoo, Yoon, Yun Yong Suk, Yoon Eunseong, Eunseok, NGUYEN DINH THINH, mattias, Dongmin LEE, Sang Hyun Lee, Sunmi Lee, Somin Lee, Seulgi Lee, Lee seung eon,

Seunghan Rhie, lee eun a, LEE EUNJEONG , Lee Eunji, Jaekak Lee, LEE. Jong-ran, Lee JiWon, LEE Chulseung, Choongyeol Lee, choonghi Lee, Lee hyun seok, Lee Hyeong-ho, Lee Hye jung, Lee ho, HoyoungLee, Labor Liberation, LIM YONG-SEOK, Im ho youn, Chsng byoung ki, jamuu, Kyeongmin, Jeun, jeon gyo tack, JEON SANGKYU, Eunkyung Cheon, Junghwan Jeon, jeon ji-yun, JEONG Dongmin, JUNG SOO GUN, Sea-young, Cheong Eunhee, Forest, JUNG JAE WON , Hayeon Jeong, JEONG Hyewon, Jane, Chokwijae, Kyusuk Cho, Joseokok, Jo Somin, Yeon, Cho Yongsuk, Eunhye Cho, Jo Jihye, CHO hyunchul, Cho Hyeong-woo, Bosco Cho, Chi young hwa, Jeehyebock, Ha, HEELE LIYANAARACHCHI CHAMIKARA, filmbyu, Kyounghun CHOI, Yoonhee Choi, Tov, Choi, Jong Deok, Hyo-Jae Choi, SUNGHO CHOI, KHIN MAYI HTAR, THAN ZAW LIN, Fado, PAARAM, HA HYUN SU, Han Kiyoung, HAN, JAEKWANG, Hanjaerang, Chaemin Han, Hamba, Heokkebi, Huh Q, hyeisoo, Hong sammy, Hong, April, Hong jeeyeon, hong hui-ja, heeum, jess, Rizqan Kariema MUstafa, Jeongeun



▣ 붙임자료3. 기자회견문(미얀마어)

မြန်မာနိုင်ငံ စစ်အာဏာသိမ်းမှုနှင့် အစုလိုက်အပြုံလိုက် သတ်ဖြတ်မှုများ ဟုနှစ်စာ၊ အာဏာသိမ်းမှု ဆန့်ကျင်ရေးလှုပ်ရှားမှုနှင့် နိုင်ငံတကာ စည်းလုံးညီညွတ်ရေး လှုပ်ရှားမှုများကတော့ ရပ်တန့်မည် မဟုတ်ပါ။

2021ခုနှစ် 2လပိုင်း 1ရက်နေ့တွင် မင်းအောင်လှိုင် ဦးဆောင်သော မြန်မာစစ်တပ်သည် သံချပ်ကာယာဉ်များဖြင့် နေပြည်တော်ရှိ လွှတ်တော်အဆောက်အဦးကို သိမ်းပိုက်ခဲ့သည်။ ထိုနေ့ နောက်ပိုင်းကစပြီး မြန်မာပြည်သူများ၏ အိပ်မက်ဆိုးကြီး စတင်ခဲ့ပါသည်။ မြန်မာလူထု၏ ဆန္ဒမဲဖြင့် ရွေးကောက်တင်မြှောက်ထားတဲ့ လွှတ်တော် ကိုယ်စားလှယ်များ နှင်ထုတ်ခံခဲ့ရပြီး၊ ဒေါ်အောင်ဆန်းစုကြည်နှင့် တကွ အစိုးရအရာရှိများ ထိန်းသိမ်းခြင်း ခံခဲ့ရသည်။ ပြည်သူလူထု၏ အသက်အိုးအိမ်စည်းစိမ်များ ဖျက်ဆီးခံခဲ့ရပြီး၊ သဘောထား ကွဲလွဲမှုများကို လျစ်လျူရှုခြင်းနှင့် နင်းချေခြင်း ခံခဲ့ရသည်။

မြန်မာနိုင်ငံသားတွေသည် လက်မလျှော့ဘဲ လုပ်ရပ်များဖြင့် ဆန္ဒဖော်ထုတ်ခဲ့ပါသည်။ ဆေးရုံ၊ မီးရထား၊ ဆိပ်ကမ်း၊ စာသင်ကျောင်း စသည့် အစိုးရဌာန လက်အောက်ခံ ဝန်ထမ်းနှင့် အလုပ်သမားများသည် အာဏာသိမ်းမှုဆန့်ကျင်ရေးလှုပ်ရှားမှုနှင့် သပိတ်မှောက်ပွဲများတွင် ပါဝင်ခဲ့ပြီး၊ အထည်ချုပ်စက်ရုံမှ မြောက်များစွာသော အလုပ်သမားများလည်း စက်ရုံတံခါး ပိတ်ကာ မြို့လယ် စုဝေးရာတွင် ပါဝင်ခဲ့ကြသည်။

စစ်တပ်သည် အကြမ်းဖက် တိုက်ခိုက်ခြင်းနှင့် သက်ဖြတ်ခြင်းများဖြင့် တုံ့ပြန်ခဲ့ပါသည်။ အလုပ်သမားများကို အလုပ်ထုတ် ခြိမ်းခြောက်ပြီး၊ ဆန္ဒပြပွဲများတွင် ပါဝင်ကြသော ပြည်သူများကို မညာမတာ သေနတ်များဖြင့် ပစ်ခတ်ဖမ်းဆီးခဲ့ပါသည်။ 2023ခုနှစ် 1လပိုင်း 27ရက်နေ့ထိ လူပေါင်း (17,492)ဦး ဖမ်းဆီးခံခဲ့ရပြီး၊ လူဦးရေ (3)ထောင်ခန့် အသက် ဆုံးရှုံးခဲ့ပါသည်။ အိမ်ပေါင်း (5)သောင်းခန့် မီးရှို့ခံခဲ့ရပြီး၊ လူပေါင်း (2)သန်းကျော် စစ်တပ်၏ တိုက်ခိုက်မှုကို တိမ်းရှောင်ရင်း ဒုက္ခသည်များ ဖြစ်လာခဲ့ရသည်။ လွန်ခဲ့သော တစ်ပတ်ခန့် 1လပိုင်း 24ရက်နေ့ကပင် ကရင်ပြည်နယ်ရှိ ကျေးရွာများသည် စစ်တပ်၏ တိုက်ခိုက်မှုကြောင့် ပျက်ဆီးကုန်ပြီး၊ ဒေသခံ (5)ထောင်ခန့်သည် နေထိုင်ရာ ဇာတိမြေမှ စွန့်ခွာထွက်ပြေးခဲ့ရသည်။ သတင်းမီဒီယာများကို ပိတ်ဆို့ထားပြီး၊ ယခုအခါမှာတော့ ပြည်သူများကို နိုင်ငံတွင်းမှ ထွက်ခွာခွင့်ကို ပိတ်ထားပါသည်။ မြန်မာပြည်သူလူထုသည် မင်းအောင်လှိုင် အပါအဝင် စစ်တပ်အင်အားစုကို ဒီမိုကရေစီ ဆန့်ကျင်သော “ပုန်ကန်ရေး အင်အားစု”သာ ဖြစ်သည်ဟု ပြောဆိုနေကြပါသည်။

ငါတို့တွေ ဒီကနေ လွတ်လပ်နေကြပြီလား? ကိုရီးယား စီးပွားရေးလုပ်ငန်းရှင် Posco International သည် မြန်မာစစ်တပ်နှင့် ပူးပေါင်းဆောင်ရွက်ခြင်းကို ရပ်တန့်ခြင်း မရှိပါ။ မနှစ်က Posco International သည် Posco Energyနှင့် ပူးပေါင်းပြီး လုပ်ငန်းအမြတ်ငွေ (1)ထရီလီယံ ရရှိခဲ့ပါသည်။ ယင်းထံမှ ပမာဏ အများအပြားသည် မြန်မာ ရွှေသဘာဝဓာတ်ငွေ့ပိုက်လိုင်း စီမံကိန်းမှ တဆင့် ရရှိသည့် အကျိုးအမြတ်များ ဖြစ်သည်။ ထို့အပြင် Posco International သည် ပြီးခဲ့သော နှစ်ကုန်ပိုင်းတွင် တစ်ရက် သဘာဝဓာတ်ငွေ့ ကုမပေ (38)သန်း ထုတ်လုပ်နိုင်သည့် မြန်မာ A-1 ကမ်းလှန်လုပ်ကွက်တွင် တည်ရှိသော ရွှေသဘာဝဓာတ်ငွေ့မြေ တတိယအဆင့် ထုတ်လုပ်ရေးလုပ်ငန်း စီမံကိန်းကို စတင်ခဲ့ပါသည်။ မြန်မာစစ်တပ်နှင့် တက်တက်ကြွကြွ ပူးပေါင်းပြီး အကျိုးအမြတ် ခံစားနေတဲ့ Posco လိုမျိုး လုပ်ငန်းရှင်သည် မြန်မာပြည်သူများ၏ ဒီမိုကရေစီနဲ့ ဘဝများကို ဖျက်ဆီးနေတဲ့ နောက်ထပ် တရားခံဖြစ်ပါသည်။

စီးပွားရေး လုပ်ရပ်များကြောင့် ဖြစ်ပေါ်လာသည့် လူ့အခွင့်အရေး ချိုးဖောက်မှုများကို တားဆီးနိုင်တဲ့ ဥပဒေများကိုလည်း သေချာ ချမှတ်ခြင်း မရှိသေးသည့် ကိုရီးယားနိုင်ငံ၏ လက်ရှိအခြေအနေကို ပြန်ကြည့်ရန် လိုအပ်ပါသည်။ Posco သည် လူ့အခွင့်အရေး ချိုးဖောက်မှုများအတွက် တာဝန်ရှိသော်လည်း ESG Index တွင် အမြင့်ဆုံးအဆင့် သတ်မှတ်ခြင်းကို ရရှိခဲ့ပြီး၊ ‘Sustainability Conference’ ဆု ရရှိသော လုပ်ငန်းရှင်အဖြစ် ‘ဖြောင့်မတ်သော ကူးပြောင်းရေးစနစ်’တွင် ပါဝင်မည်ဟု ကြေငြာနေပါသည်။ ပြည်ပ သယံဇာတ ဖွံ့ဖြိုးတိုးတက်ရေး လုပ်ငန်း ဆောင်ရွက်မှု ကာလတွင် လူ့အခွင့်အရေးအပြင် ပတ်ဝန်းကျင်နှင့် ပတ်သက်သော လူ့အဖွဲ့အစည်း တာဝန်ကို မြှင့်တင်မည့် ပြည်ပသယံဇာတဖွံ့ဖြိုးရေးလုပ်ငန်းဥပဒေကို လွှတ်တော်တွင် တင်သွင်းခဲ့သော်လည်း သက်ဆိုင်ရာ အောက်ကော်မတီ အဆင့်တွင်သာ ရပ်တန့်နေပြီး၊ စက်မှုနှင့်စွမ်းအင်ဝန်ကြီးဌာနကပင် လူ့အခွင့်အရေးနှင့် ပတ်ဝန်းကျင် ကာကွယ်ရေးထက် စီးပွားရေးလုပ်ငန်း၏ လွတ်လပ်စွာ လုပ်ပိုင်ခွင့်ကို ထောက်ခံအားပေးနေပါသည်။ မြန်မာနိုင်ငံ၏ စည်းလုံးညီညွတ်ရေးသည် ငါတို့၏ ဒီမိုကရေစီနှင့် လူ့အဖွဲ့အစည်းလိုခြံရေးကွန်ရက်ကို ကာကွယ်သည့် လုပ်ဆောင်မှုနှင့် မသက်ဆိုင်ခြင်း မရှိတာဟာ ဒါကြောင့် ဖြစ်ပါသည်။

ဆိုးရွားတဲ့ အခြေအနေထဲမှာတောင် မြန်မာပြည်သူများ၏ ခုခံမှုများ ဆက်တိုက် ရှိနေပါသည်။ နိုင်ငံတကာအဖွဲ့အစည်းများသည် မြန်မာပြည်သူများ၏ ဒီမိုကရေစီအရေးအခင်းအတွက် မျှော်လင့်ချက်နှင့် ဆန့်ကျင်ရေးလှုပ်ရှားမှုများနဲ့ ပတ်သက်ပြီး စည်းလုံးညီညွတ်စွာ ဆက်လက်လုပ်ဆောင်နေပါသည်။ ပြီးခဲ့တဲ့ 2နှစ် လုံးလုံး မြန်မာနိုင်ငံ ဒီမိုကရေစီအတွက် စဉ်ဆက်မပြတ် ထောက်ပံ့ပြီး လှုပ်ရှားမှုများ ပြုလုပ်လာသည့် ကိုရီးယား အရပ်ဘက် အဖွဲ့အစည်းများသည်လည်း ရပ်တန့်ခြင်း မရှိ စည်းလုံးညီညွတ်ရေး အဖွဲ့နှင့် ဆက်လက်ပံ့ပိုးကူညီသွားဖို့ ဆုံးဖြတ်ထားပါသည်။ ယနေ့အချိန်တွင် မြန်မာပြည်သူများက ဒီမိုကရေစီစနစ် ပြန်လည် ထူထောင်နိုင်ခြင်းနှင့် မထူထောင်နိုင်ခြင်းသည် စစ်အာဏာရှင်စနစ်နှင့် ရာသီဥတုအန္တရာယ်များကြား တိုက်ပွဲဝင်နေကြတဲ့ ပြည်သူအားလုံး ငြိမ်းချမ်းပြီး လွတ်လပ်သော ဒီမိုကရေစီ ဘဝကို ပြန်လည်ထူထောင်နိုင်မလားဆိုတာနဲ့ ဆက်စပ်နေပါသည်။ အာဏာသိမ်း ဆန့်ကျင်ရေး လှုပ်ရှားမှုများ မရပ်တန့်သေးသော မြန်မာပြည်သူများ ရှိနေသေးသရွေ့ ငါတို့လည်း ဆက်လက် လက်တွဲပါဝင်သွားပါမည်။ အားတင်းထားပါ မြန်မာ။

2023ခုနှစ် 2လပိုင်း 1ရက်

မြန်မာနိုင်ငံ ဒီမိုကရေစီ ရရှိရေးတွင် ပူးပေါင်းပါဝင်သော 200 သူများနှင့်

မြန်မာနိုင်ငံသားများ ကူညီထောက်ပံ့ရေးအသင်း အပြင် 145 အရပ်ဘက်အဖွဲ့အစည်းများ

#### ▣ **붙임자료4. 발언문**

##### **발언1\_ 안나이툰(NUG한국대표부 특사)**

##### **발언2\_ 강인남(해외주민운동연대 대표)**

나의 귀한 동지 묘우, 무사한가요? 밥은 잘 챙겨먹고 있지요? 2021년 2월 1일 나조차도 믿을 수 없었던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천고 끝에 쟁취한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거품처럼 사라지려고 방울을 터트리던 날, 나는 2009년 한국의 봄이 떠올랐습니다. 토요일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쪼그려 앉아 서명을 받던 묘우의 검붉은 조끼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에 연대해 주세요’ 매주 일요일이면 한남동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서 수많은 미얀마 노동자들이 들었던 박스 피켓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군부독재 몰아내자’ 묘우, 당신들이 들었던 그 몇 글자를 오늘은 우리가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돌고 또 돌았던 발목 시렸던 그 곳에 오늘은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당신들의 싸움이 얼마나 외롭고 절박했는지 당신의 심정을 느껴보려 애쓰니 단 한 마디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의 연대로 행동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묘우와 같은 수많은 미얀마 시민들의 꿈이지 않았던 행동은 2015년 미얀마의 따뜻한 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묘우는 2016년 스스로 난민지위를 포기하고 주저함 없이 미얀마를 선택했습니다. 가끔 미얀마 찻집에서 마주 앉은 묘우는 좀체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군부와 공존하는 새로운 정부의 한계, 외국기업의 무분별한 개발이 만들어 내는 빈곤의 나락, 삶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선배 지도력 부재, 고심하던 낮빛을 읽어내던 날 우리는 꿈을 만들었지요. 10년 이후의 미얀마를 상상하며 청년들을 교육하기로, 88 여성 리더들을 한국의 시민사회와 이어보기로, 그리고 들었던 설렘의 파이팅 술잔은 이제는 서로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그림자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2,725명의 희생 시민, 1,247,200명의 피난 주민, 48,463채의 전소가옥, 101명의 사형선고가 있는 후 나는 묘우를 화면으로 만났습니다. 한국의 차별에 맞서 싸운 수년의 경험과 지혜로 당신이 도시 한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들었기에 덤덤한 각오로 묘우를 만났습니다. 적어도 애썼다 한 마디쯤은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린 멍멍한 가슴만 서로 알아챈 체 글썽글썽한 눈만을 한참을 바라보다 화면을 달았습니다. 10대의 후배들을 군부에 빼앗기고, 피 불이 같던 동지가 교수대에 목을 내걸던 날, 그 많은 관계들을 스스로 피해 머리를 깎고 4개월을 칩거한 묘우가 산속 깊은 곳으로 다시 갔다고 문자를 보내왔지요,

2022년 9월 2일, “오늘 아무 말도 못했지만 처음으로 밖에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한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개인의 모든 것은 물론이고, 같이 싸운 동료와 후배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일년 동안 하루도 잠을 못자고 매일이 두려운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활동은 가장 위험하고, 순간순간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밤이되면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조차 군인들이 나에게 총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악몽입니다. 두려워서 피해갈 수도, 숨어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잃은 동료들의 빈자리에 새로운 활동가를 채우는 일, 빼앗긴 물건들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일, 보내져 온 것들을 도시까지 들여오는 일, 도착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배분하는 일, 작전을 세우고 미션을 실행하고, 미션 후 안전하게 빠져나가도록 하는 이 모두의 한 단계 한 단계가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어서 이 모든 것을 손에서 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미얀마 시민들을 지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먼 길을 뛰어야 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새로운 전략을 서서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끝에는 도착지가 있는 것을 잘 알지만, 보이지 않는 이 먼 길을 스스로 지켜가겠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고요하지만 필요하면 투사가 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옛날에도 그랬 듯이 지켜봐주십시오. 꼭 이길 것입니다”

묘우 4월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사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음의 정 가운데로 들어가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미얀마의 수많은 당신이 지치지 않도록 행동으로 지지하겠습니다. 무기가 되어 당신의 심장을 겨누는 한국기업의 경제 제재를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미얀마 봄의 혁명이 아시아 봄의 혁명으로 연결되도록 더 멀리 내다보며 즐겁게 이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살아만 주십시오. -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 시민불복종 저항 운동 2주년에, 당신의 동지 인남.

### 발언3\_ 웨노웨 흐닌 쏘(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 리더)

안녕하세요? 행동하는미얀마청년연대 리더 웨노에 입니다. 오늘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맞서 일어난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운동인 봄의 혁명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불법적, 야만적으로 권력을 강탈한 군부에 맞서 싸우는 그 2년 동안 우리 저항시민 쪽에서는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1월 30일 기준) 사망자 2901명, 체포자 17,525명, 구금자 13,719명에 이르고 사형 집행된 분들과 사형을 기다리는 분이 143명이나 됩니다. 그야말로 끝나지 않는 악몽같은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시민 저항운동은 지금도 미얀마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의 막강한 화력은 미얀마 봄의 혁명을 조금 지연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겠다는 미얀마 시민들의 마음만큼은 꺾을 수 없었고 저항 운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저항운동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3일, 무력으로 국가권력을 손아귀에 쥔 군사위원회는 그들이 계획한 대로 올 연말에 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군부가 주도해 만든 2008헌법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 선포 유효기간은 2년이고 국방안보회의(NDS)는 6개월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1년 2월 1일, 불법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주축이 된 군사위원회가 치르는 선거는 2008 헌법 자체의 무효를 외치는 우리 시민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선거입니다. 군부는 갖은 회유와 협박으로 선거를 치르고자 할 것이고 형식적이지만 선거를 통해 합법적 정부를 만들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으로선 오늘 이 순간까지도 미얀마 전역에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우리 동지들과~~ 같은 마음, 하나된 마음으로 저항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싸우시다. 군부독재 종식되는 그날까지! 미얀마연방 민주주의가 오는 그날까지! 제 인사의 마지막은 미얀마 시인의 시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반짝이는 별 하나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늙은 어머니의 미소는 여전하다  
설마 늙은 어머니의 정신이 나간 게 아니겠지요?  
라고 했더니  
수많은 이들의 유골을 왕좌에 깔고 앉으면  
왕이나 된 줄 아는 그 놈보다  
난 정신이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 늙은 어머니  
왜 눈물 대신 미소를 지으셨는지요?

라고 했더니  
하늘을 향해 가만히 손가락을 가르킨다  
늙은 어머니 손가락 그 끝에  
대낮임에도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다  
아~!!!

시인 칸와네인 /모마카 잡지 2022.11.18일

#### 발언4\_ 전은경(참여연대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참여연대 전은경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지 2년입니다. 얼마전 볼커 튀르크 유엔최고인권대표가 밝혔듯이 미얀마는 깊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모든 분야 인권의 전면적인 퇴행을 겪고 있습니다. 교전 중 민간인을 보호해야 하는 명백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인들이 표적화되고, 무차별적인 포격과 공습, 초법적인 처형, 고문, 방화 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경제는 붕괴되었고, 미얀마 전체인구 중 40%가 빈곤선 이하에 놓여있습니다. 미얀마인들의 삶은 군부의 폭정으로 피해를 겪고, 군부는 최근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장기집권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쿠데타 2년은 시민저항 2년이기도 합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군부 통치하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끈질긴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자유와 평화, 평등과 정의,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봄의 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얀마 시민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시민사회도 미얀마의 봄을 기다리며 지난 2년간 미얀마 시민들과 연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며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미얀마분들과 한국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저항과 혁명의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추운 겨울, 19개월밖에 안된 어린 아이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활동하는 엄마품에 안겨 집회와 행진을 같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간절함에 한국도 응답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국제사회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시민들을 학살하고, 무차별적인 폭격과 체포와 구금을 하는 것은 다른 아닌 이들의 행태에 방관하는 국가들이, 이들의 자금줄이 되어주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전쟁 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질러왔던 미얀마 군에 대해 국제사회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고 처벌하지 않아서 오늘의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각국 기업이 미얀마 군 소유 기업들과 합작 등의 형식으로 사업을 유지하면서 미얀마 군에 큰 수익을 가져다주어 미얀마 군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시민사회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미얀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포스코 C&C는 말 뿐이 아니라 MEHL과 실질적으로 합작관계를 종료할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공개해야 합니다. 꿈을 부려 불법으로 군함을 수출한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대한 철저한 수사 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유엔미얀마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기업에 대한 표적제재, 즉 유럽연합처럼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에 대한 경제제재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미얀마의 현지 상황을 고려해 모든 미얀마 국적자들을 강제송환하지 않고, 현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미등록 체류’인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시민사회도 미얀마의 봄을 위해, 봄의 혁명이 완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발언5\_ 윤지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오늘로부터 2년전인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군부가 지원하는 정당이 총선에서 패배하자 확실한 증거도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키고 즉시 정치적 반대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대규모 시위와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미얀마 군부의 횡포에 대응했지만, 군부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학대를 저지르는 등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군부와 경찰은 정치인, 활동가, 의료인, 언론인 등을 광범위하게 체포하고 시위대에 발포할 뿐만 아니라 강제 실종, 고문, 강간 및 성폭력, 심각한 자유 박탈 및 기타 비인간적 행위를 자행하며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열악한 심문소와 교도소에서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미얀마 내에서 1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항민이 되었고, 17,000명 이상이 비인도적 환경에 구금되었으며, 최소 100명이 사형을 선고받았고, 780만 명의 어린이가 학교에 가지 못해 교육을 박탈당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이후 “군부에 대한 반란 진압”이라는 맥락하에 평화로운 시위대, 운동가 및 기타 민간인을 포함하여 2,700명 이상을 살해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제트기와 전투기를 이용하며 민간인에 대한 공습 또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은 놀랍도록 부족하고 부적절합니다. 미얀마의 국민을 보호하고 미얀마 군이 인권 탄압을 당장 멈추도록 긴급한 글로벌 행동이 필요합니다. 유엔과 전 세계 정부, 기업은 미얀마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상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모든 무기, 군수품, 기타 군사 및 보안 장비, 훈련 및 추가 형태의 지원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글로벌 무기 금수 조치를 미얀마에 부과해야 합니다. 국가와 기업은 항공연료가 공습에 사용되지 못하게 막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마련될 때까지 미얀마에 대한 항공 연료의 환승, 환적 및 중개를 포함한 직간접적인 공급, 판매, 또는 이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에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MEHL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와 파트너십을 맺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스코는 2021년 4월 MEHL의 지분을 매각하고 합작관계를 중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포스코가 언약을 이행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포스코는 면피만을 모색할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를 지키고 기업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 전역의 민간인들은 자신들의 인권 존중을 요구하며 놀라운 용기와 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구금 시설과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고문의 위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지만 미얀마 시민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장려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 평화적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군대의 범죄를 기록하고 분쟁의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에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역시 미얀마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을 알리고 책임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며, 한국의 대표적 기업인 포스코가 군부와의 협력사업들을 단절하고 인권침해에 연루되거나 기여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압력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미얀마의 인권상황이 더 이상 묵인되거나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 기업, 시민 모두가 미얀마인들의 목소리에 목소리를 더해야 할 때입니다.